

남원에 관광형 모노레일 달린다

합파우관광지 2.16km 순환형... 2021년까지 316억 투입 업체 3곳과 투자 협약... 광한루원 연결 짚와이어도 설치

남원시가 지역대표 관광지 광한루원 일대에 관광형 모노레일 민간개발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남원시와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삼안, 이엠티씨, 챌린지코리아는 합파우관광지에 모노레일과 짚와이어(zipwire)를 설치하기로 하고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는 2021년까지 316억원을 들여 남원 합파우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2.16km 길이의 순환형 모노레일을 만들기로 했다. 합파우관광지 안의 남원시립 김병중미술관, 남원예술촌, 항공전문대, 춘향테마파크 등을 둘러보는 코스로 8인승 15량을 운행할 계획이다. 항공전문대 인근에는 광한루원 인근의 남원에촌으로 이어지는 공중하강체험시설(짚와이어) 2개를 만든다. 체험시설은 800m 길이의 성인용과 436m의 어린이용 등 2개로 구성된다.

업체들은 연말 안에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내년 1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안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로 민자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남원시에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설치, 어드벤처 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 제안을 남원시에 제시해 투자협약으로 이어졌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인 광한루원과 합파우를 연결하는 이들 인프라가 구축되면 즐길 거리가 더욱 풍성해지고 상호 접근성이 개선돼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는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삼안, 이엠티씨, 챌린지코리아와 합파우관광지에 모노레일과 짚와이어(zipwire)를 설치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 제공)

익산, 배수구역별 블록 구축·노후관 교체

상수도 관망 최적화 2021년까지 409억 투입

익산시가 상수도 관망 최적화를 위한 블록화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2021년까지 409억원을 투입해 배수구역별 블록 구축과 노후관 교체에 나선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17개 블록을 구축하고

노후관 7.4km를 교체했다. 올해는 8개 블록구축과 함께 노후관 6.0km를 교체할 방침이다. 시는 2021년까지 총 31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관 74km 교체와 함께 가압장 4개소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1년까지 블록화사업 등이 마무

리되면 현재 71.4%인 우수율이 80%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수율 1% 증가시 연간 4억5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시는 사업 후 노후관 562km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체한다는 구상이다. 최양욱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신속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j@kwangju.co.kr



순창 '강천산 단월야행' 개장 지난 5일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해 순창군의회 의원과 각 실·과·소장 및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천산 단월야행' 콘텐츠를 시연했다. 순창군은 강천산 야간 명소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야간개장에 들어갈 계획이다. (순창군 제공)

정읍시, 폭염 대응 축산농가 피해예방 나서

상황실 운영... 2억5000만원 투입 제방기 등 지원

정읍시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분야 폭염 대응 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올해도 무더위가 일찍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피해 예상지역을 사전점검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총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해 제방기와 환풍기, 안개분무기 등을 지원하고 폭염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상황은 닭 87건, 오리 13건, 돼지 47건, 메추리 1건을 포함 총 45만 7662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시는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상황을 전파하고 폭염으로 인한 폐사 가축의 처리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또 축사 통풍과 물 뿌리기를 통한 복사열 방지, 전기장치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 등 축사시설물과 가축 사양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은 식욕과 성장이 저하되고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며 심할 경우 폐사로 이어진다"며 "아직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보험에 가입하여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주 기자 khj@

'청정' 고창갯벌축제

9일까지 어촌체험마을

'2019 고창갯벌축제'가 7일부터 사흘간 고창군 심원면 만들 어촌체험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에서는 '갯벌 속 황금 거북알 캐기', '갯벌 썰렁 대화', '갯벌 친구들과 놀자', '갯벌 관찰' 등 갯벌에서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풍천장이 잡기, 염전 체험, 범게 가면 만들기 등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도 풍성하다. 고창의 명품 김으로 만든 부각, 싱싱한 해산물을 넣어 끓인 해물 라면, 풍천장이 등 고창의 농특산물과 수산물을 맛보고 싸게 사는 장터도 열린다. 행사가 열리는 고창 갯벌은 2010년에는 람사르습지, 2013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고창=김형주 기자 khj@

신안 '섬 깡다리 축제' 8~9일 임자도에서 개최

기상악화로 하루 연기... 첫갈 담그기·공연 등 다채

신안군이 당초 7일부터 개최하려 했던 '섬 깡다리 축제'의 일정을 하루 연기해 8일부터 이틀간 임자도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4일 기상악화 등을 이유로 개최 장소를 임자도에서 육지인 지도읍 첫갈타운으로 변경하는데 이어 오후에는 전격 취소했다. 축제 당일 강풍예보특보가 발효돼 여객선 운항이 통제될 가능성이 높아 장소를 변경했으나 사고위험과 물량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어 전격적으로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하지만 이튿날 또다시 일정을 하루 연기해 8일부터 개최한다고 반복했다. 날씨가 호전된다는 기상예보가 있다는 이유로 하루만에 개최 취소를 반복하면서 눈치를 샀다. 신안군 관계자는 "개최 여부를 두고 의도하지 않게 혼선이 있었다"면서 "섬에서

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 축제를 예정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인석 축제추진위원장은 "6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축제여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전 문제와 직결돼 축제 일정을 신중하게 고민했다"며 "하루만 늦추면 날씨가 좋아진다고 해 하루 연기해 축제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축제에는 깡다리 첫갈 담그기, 수산물 경매, 가요제, 난타 공연, 초청 가수 공연 등이 준비됐다. 깡다리를 직접 살 수 있는 직거래 판매 코너를 운영하고 첫갈 저장 장소로 사용한 옛 토굴도 관광객에게 개방한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4월 간재미, 5월 흥어축제를 시작으로 6월 깡다리·병어·밴댕이, 7월 민어, 9월 불불락, 10월 왕새우·나직, 11월 새우젓 등 제철을 맞아 가

? 깡다리 강달어의 신안군 방언으로, 지역에 따라 황석어, 황새기로 불리는 농어목 민어과 어종이다. 주로 5-6월에 잡히는 깡다리는 70년대에는 신안 임자도 전장포와 비금도 원평항에서는 파시(波市)가 열릴 정도로 유명세가 있는 어종이다.



장 맛있고 많이 잡히는 시기에 맞춰 수산물 축제를 열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드론 특화도시' 고흥에 10개 기업 입주

지식산업센터 운영 업무협약 178억 투입... 체험장 등 갖춰

우주항공과 드론 특화도시를 지향하는 고흥군에 드론 기업 10개사가 둠지를 튼다. 고흥군은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근 전남테크노파크·드론 기업 10개사와 드론평화 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입주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드론평화 지식산업센터는 고흥항 항공센터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9124㎡ 규모로 총 국비 125억원 등 178억원이 투입된다. 2021년까지 중소·벤처기업 입주 공간과 창업보육실·기업지원 시설·드론 체험장 등을 갖춘다. 고흥군은 드론산업 육성 정책개발과 행정지원 지원을 하고, 전남테크노파크



는 드론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과 기업지원의 거점 역할을 한다. 협약에 참여한 드론 기업들은 본사를 고흥에 이전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 연구소나 제조공장을 현지에 조성해 드

론산업 육성에 동참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드론 시험·평가·인증 시스템 구축과 드론 제조기반 확충, 전문인력 양성, 레저산업 활성화로 고흥을 국내 최대의 드론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지난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